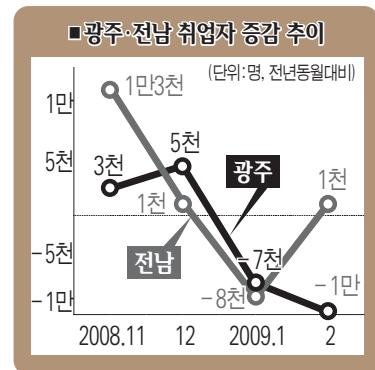


광주 실업률 3년만에 최악

2월 중 4.8%... 취업자수 두달새 1만4천명 줄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일자리 유지에 안간힘을 쓰고 있음에도 고용사정이 급속히 악화되고 있다.

18일 노현지방통계청이 발표한 '2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광주 지역 취업자는 62만3천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만명(-1.5%) 줄면서, 두 달 사이 1만4천명이나 감소했다.

실업자는 3만2천명으로 9천명(4.7%) 늘었고, 실업률은 4.8%까지 치솟았다. 이는 지난 2006년 2월 5.0% 이후 3년만에 최악이다.

울산·대구(5.1%), 서울(4.9%)에 이어 세번째로 전국평균(3.9%)을 크게 웃돈다.

여성들의 실업이 두드러졌다. 지난 달 3천명(31.3%)이 증가한 1만1천명의 여성들이 일자리를 잃었으며, 남성 취업자는 3천명 줄어든 -0.8% 하락한 반면, 여성은 7천명(-2.5%)이나 감소했다.

이는 알프스 전자 등 지역 업체가 연초 구조조정을 하면서 일자리를 잃은 여성들과 높은 취업 문턱에 구직 활동을 단념한 20대 여성들이 급증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직업별로는 농림어업과 건설업의 취업자 감소가 많았다. 지난달 졸업 시즌 이후 청년백수는 증가한 것도 한몫했다. 고용의 질도 나빠졌다.

경기침체 여파로 한 달 사이 자영업자가 3천명(-2.1%)이나 감소했지만, 비임금근로자는 16만1천명으로 2천명(1.2%)이나 증가했다.

입금근로자는 46만2천명으로 지난해보다 1만2천명(-2.4%)이나 줄었

으며, 주당 평균취업시간이 36시간 미만인 취업자도 9만1천명으로 1만6천명(21.4%)이나 증가했다.

전남의 경우 취업자 수가 86만9천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천명(-0.1%) 감소했으며 실업률은 0.5%포인트 하락한 2.2%를 기록하는 등 광주보다는 고용상황이 좋았다.

하지만, 주당 평균취업시간이 36시간 미만인 취업자가 18만2천명으로 지난해보다 2만4천명(15.4%) 늘었지만 36시간 이상 취업자는 66만6천명으로 3만7천명(-5.3%)이 줄면서 고용여건은 악화됐다.

전국적으로는 지난달 취업자는 2천204만7천명으로 14만2천명이 줄어 2003년 9월 이후 5년 5개월만에 최악이다.

실업자는 92만4천명으로 100만명 돌파를 눈앞에 뒀다. 실업률도 3.9%로 4%대 진입을 앞두고 있다. 청년실업률은 8.7%로 지난 2005년 3월 8.3%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온미기자 emlee@kwangju.co.kr



"일자리를 달라"

대학생단체소속 회원들이 18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청사 앞에서 '청년실업 해결'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지난달 청년실업률은 경기침체 등으로 인해 8.7%까지 치솟아 지난 2005년 3월(8.3%) 이후 최악이다.

광주 수출 넉달만에 늘었다

2월중 5억1천만弗...전달보다 4.9% 증가

자동차·타이어 등 주요 제품 수출 살아나

글로벌 경기위축으로 급속히 추락 하던 광주 수출이 4개월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다. 자동차와 타이어 수출이 회복세를 보인 덕분이다.

광주세관이 18일 발표한 '광주·전남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광주시의 수출실적은 모두 5억1천 100만 달러로 전달보다 4.9% 증가했다.

1월보다 승용차 74%, 경공업품 12.3%, 고무 타이어 8% 등 주요 제품의 수출이 살아난 결과다.

광주 수출은 지난해 11월 7억7천 200만 달러, 12월 6억2천100만 달러, 1월 4억8천700만 달러로 3개월 동안 내리 감소했다. 수입은 전월대비 21.1% 감소한 1억9천600만 달러로 녀달 연속 감소세를 나타냈다.

무역수지는 미국·EU에 대한 흑자에 힘입어 3억1천500만 달러를 기록, 지난 2003년 4월 이후 72개월 연속 흑자를 유지했다.

광주세관 관계자는 "기아차의 미국과 유럽지역 수출이 호조를 보이는 등 광주의 주요수출 품목인 승용차와 경공업품, 고무타이어 등의 수출이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며 "세계 경기 전망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상승세를 유지할 수 있을지는 아직 알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전남은 수출이 전달보다 52.7% 증가한 16억5천만 달러를 기록했으나 수입이 18억4천300만 달러에 달해 1억9천400만 달러의 무역수지 적자로 보였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KT-KTF 합병

방통위 조건부 승인

방송통신위원회가 KT-KTF 합병에 대해 조건부 인가했다. 이에 따라 KT는 자회사인 KTF와 하나로 합쳐 유·무선전화와 초고속인터넷, 와이브로, IPTV를 아우르는 거대 종합통신(컨버전스) 기업으로 탄생하게 됐다. 자산 24조 원, 연매출 19조 원의 규모로 금융권을 제외한 기업합병 사례로는 2000년 LG전자·정보통신 합병(매출 16조, 자산 12조 원)을 능가하는 역대 최대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KT가 제출한 자회사 KTF의 합병계획에 3가지 인가조건을 붙여 조건부 인가의견했다.

인가조건은 ▲전주, 관로 등 설비

제공제도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개선 계획 제출 ▲시내전화, 인터넷전화 번호이동절차 개선계획 제출 ▲무선인터넷 접속체계의 합리적 개선 및 내·외부 콘텐츠 사업자 간 차별 금지 등이다.

인가조건은 앞으로 3년간 6개월마다 이행상황을 보고해야 하며 위반 시 방통위는 합병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방통위는 이와 함께 전국 농어촌 지역 광대역 통합망 구축, 국가 주요 통신시설의 안정성 유지, 국가정보통신기술 발전 기여 등 공익에 대한 책임을 지속적으로 이행하고 가입자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관련 법령을 성실히 지킬 것을 촉구하기로 했다.

인가조건은 ▲전주, 관로 등 설비

국세청은 18일 소비자 상대업종 개인사업자 중 작년 수입금액이 2천400만 원 이상인 자는 3월 말까지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가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개인사업자 중 전문직·병의원사업자와 법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맹점 가입을 완료해야 한다.

/연합뉴스

백화점 '무료 배달' 서비스 강화

동네슈퍼 "너무 한다" 볼멘 소리

백화점·대형 마트도 무료 배달을 강화하고 있다. 한 개라도 더 팔기 위해 동네 슈퍼에서 애용하던 방식을 벤치마킹한 것이다. 슈퍼 주인들은 "너무 한다"고 우려 성이다.

롯데백화점 광주점은 최근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고객을 위해 '근거리 무료 배송 서비스'를 확대했다. 서비스 대상은 당일 구매 금액 5만원에서 2만원 이상으로

기름값·생활물가 상승 등 불황 때문이다. 자동차 없이 백화점에 들러 쇼핑을 한 뒤 무료 배송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이 급증한 것이다.

광주신세계 백화점도 무료 배송 이용건수가 3월(18일까지)

현재 1천561건으로 지난해 이맘 때보다 14.5% 증가했다. 신세계는 부피가 큰 제품을 구입하거나 구매금액이 5만원 이상인 고객을 대상으로 무료 배송 서비스를 하고 있다.

신선식품과 가공식품, 생활용품 등 1천500여개 품목(계란·두부·주류 등 파손 위험이 있는 상품은 제외)을 광주 전지역에 당일 배송하고 있다.

반응은 폭발적이다. 서비스를 시작한 지난해 8월 한 달 동안 200건에 불과했으나, 요새는 매달 600건 이상으로 3배나 늘었다.

빅마트 본점도 하루평균 배달 건수가 190건으로 지난해에 비해 31.5%나 증가했다.

광주시 동구 운림동에서 슈퍼마켓을 하고 있는 이모(47)씨는 "백화점이 무료 배송 서비스까지 하는 통에 동네 장사가 갈수록 어렵다"고 말했다.

/이온미기자 emlee@kwangju.co.kr

“中企 대출 거부땐 사유 반드시 확인”

금감원, 은행 창구별 모니터링제 운영

은행 영업점이 중소기업 대출거절 사례를 기록하고 금융당국이 이를 모니터링하는 제도가 운영된다.

김종창 금융감독원장은 18일 기자 간담회에서 광주 등 지방 중소기업 현장방문 결과를 설명하면서 "최근 보증확대 등 적극적인 지원조치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들이 여전히 자금 조달상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금까지는 대출을 실시한 경우만 은행에 기록이 남아 대출거절 사례에 대한 분석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했다.

김 원장은 "대출거절 사례 모니터링을 통해 대출거부 사유 및 거부기 업에 대한 특성 분석이 가능해 향후 중소기업 지원정책 추진의 방향 설정

고용악화 장기화땐
취업 100만명 감소

고용 악화 추세가 장기화하면 취업자 수가 100만 명 가까이 감소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주장이 나왔다.

현대경제연구원은 18일 '외환위기 시 고용구조 변화와 시사점'이라는 보고서에서 "건설·하운드에 이어 자동차, 철강, 조선, IT 등 제조업 전반에 걸쳐 기업 실적이 악화되고 있어 산업 전반으로 고용위기가 확산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에는 취업자 감소폭이 1분기 93만 명, 2분기 130만 명, 3분기 151만 명, 4분기 136만 명 등으로 100만개 이상 일자리가 감소했다.

연 구원은 "직업별로도 임시직에 이어 전문가와 공무원, 관리직으로 고용 악화가 심화될 것"이라며 "올해 1분기 이후로 기업 구조조정이 본격화되면 자영업에서 시작된 고용 악화가 제조업 임금근로자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최근 경영사정이 악화된 중견 혹은 대기업들이 구매대금을 기한 내에 지불하지 않아 중소기업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기 때문이다.

/연합뉴스

부동산 경매 전문회사

주식회사 에셋코리아

경매에 관한 모든 상담

062)236-3400

assetkorea.com = 전국 2만여 건의 경매물건리스트 / 변호사 무료법률상담 / 경매전문가 무료상담

최고수의률 / 세금계산서 발급(양도세감면) / 신속한행명도 / 정화한권리분석 / 최상의대출

에셋코리아에서는 꼼꼼하게 현장조사를 실시한 후 수익성 있는 우량물건만을 추천합니다.

근린사회/풀무원 대표이사 010-7570-7525 아파트/빌라 손해연이사 010-9611-2017 주택/재개발 전자현물장 010-608-5951

소재지 대지/건물 갈망가 최저가 비고

문화동 대1138.간169 111억 62억 신속도장원

문화동 대538.간308 51억6천 28억 8층동

문화동 대238.간756 26억 19억 8층동

수기동 대50.간103 4억2천 1억8천 1층동

중동동 대100.간201 65억1천 29억7천 7층동

생활동 대137.간301 19억5천 13억8천 2층동

농동동 대701.간160 63억 35억 예식장

소죽동 대802.간188 64억6천 36억3천 7층 광평동

노원동 대683.간203 59억7천 4억 주거기기

자석동 대151.간213 5억 2억2천 2층동

고공동 대612.간779 31억 17억 주거기

평촌동 대62.간208 2억 1억7천 원룸4단지

송정동 대127.간175 5억1천 3억8천 원룸24단지

전화 010-3833-0011 근린사회/풀무원 대표이사 010-5879-0005 경매에 관한 모든 상담

소재지 대지/건물 갈망가 최저가 비고

오늘동 대93.간298 3억6천 1억7천 3층동

인왕동 대48.간145 2억6천 1억7천 4층동

신도동 대62.간138 4억5천 3억3천 3층동

월동동 대76.간84 3억2천 1억7천 3층동

광장동 대538.간2108 29억 5층동

인제동 대100.간118